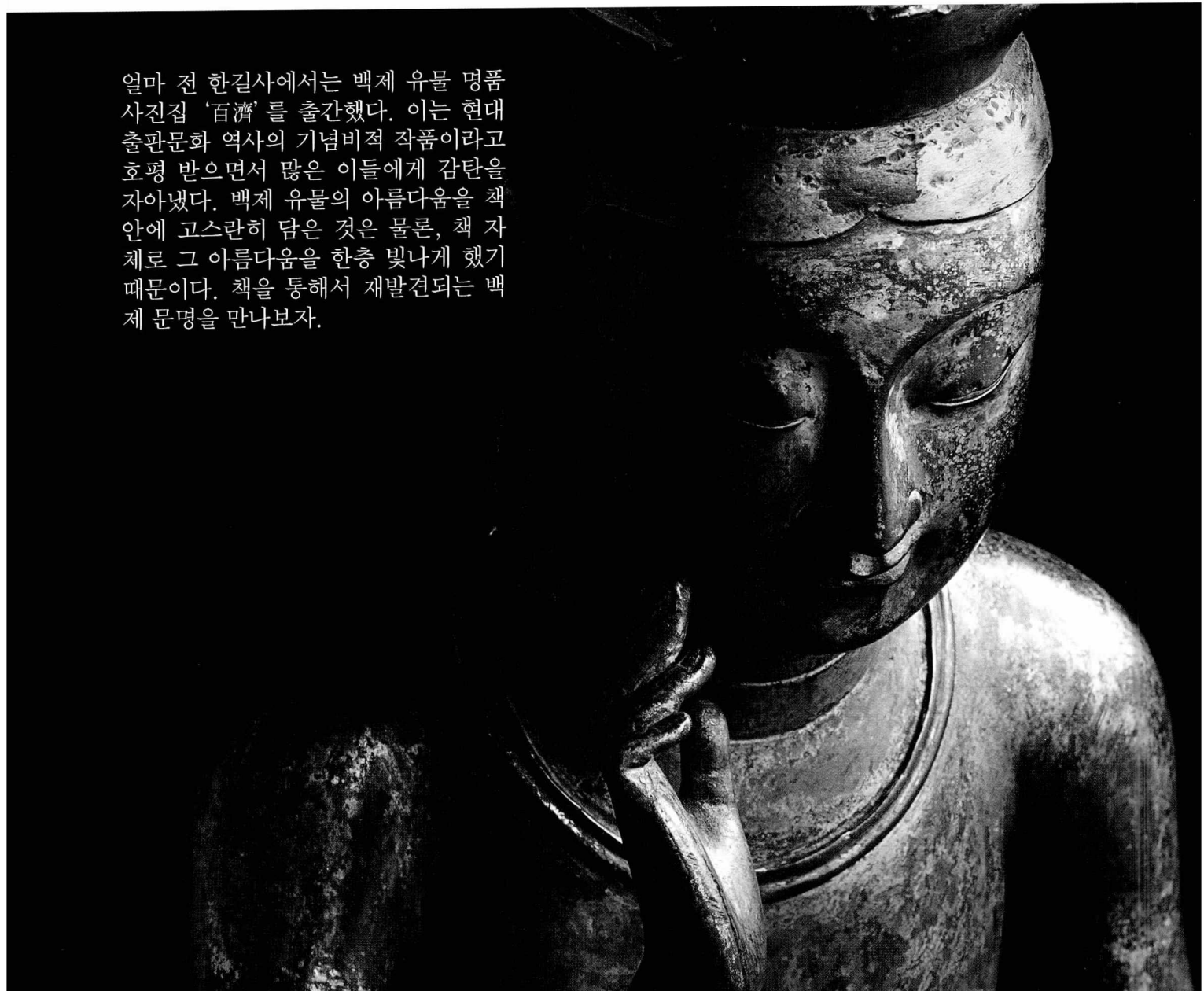




## 백제의 아름다움 재발견, 도록 '百濟'

책 한권이 20kg 가격은 200만원

얼마 전 한길사에서는 백제 유물 명품 사진집 '百濟'를 출간했다. 이는 현대 출판문화 역사의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호평 받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냈다. 백제 유물의 아름다움을 책 안에 고스란히 담은 것은 물론, 책 자체로 그 아름다움을 한층 빛나게 했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서 재발견되는 백제 문명을 만나보자.





잊혀진 문명이 있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철저히 파괴되어 버린 문명. 바로 '백제'다. 백제는 오랫동안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했지만, 몇 가지 수수께끼를 남기곤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남긴 수준 높은 유물들을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유물들을 통해서 백제라는 거대한 문화 왕국을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좀 더 오랫동안, 더욱 풍부하게 백제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국립부여박물관과 부여군의 오랜 고민이었다. 그러다가 부여군과 국립부여박물관은 국내 대표적인 출판사인 한길사에게 모험을 제안했다. 이들이 한길사를 택한 것은 민족문화를 아름답게 존재 발전시키려는 창립정신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라는 판단에서였다. 물론, 한길사에서조차 쉽지 않은 도전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사라진 문명을 찾은 모험인 '百濟'가 시작했다.

기획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떻게 하면 동아시아 문화의 정점을 이루었던 백제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었다. 어느 한순간 몰락하면서 그 찬란한 미를 제대로 보존하지도 전파하지도 못한 백제, 그들이 남긴 국내의 유물들을 골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도록 '百濟' 제작의 테마였다. 일관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술성과 역사성이 있는 유물을 선별하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는 일이 중요했다.

### 아름다움의 절정, 그 찰나를 포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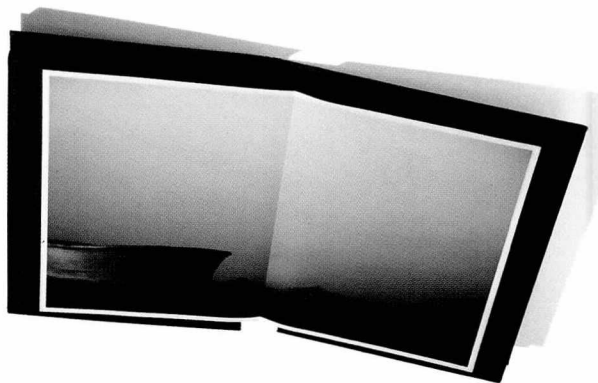
사진으로 유물을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이나 위험이 큰

작업이다. 유물의 아름다움을 왜곡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작품으로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에 참여한 준초이라는 사진작가는 "한국의 불상을 처음 느껴보았는데, 빛의 각도, 보는 것에 따라 슬퍼졌다가 아주 부드러운 시선을 느끼기도 했다"며 자신조차도 오랫동안 백제유물의 아름다움에 포로가 되어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런 작가의 사랑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시선이 존재한다. 그것은 왜곡과 오해에서 온 것이 아닌, 아름다움의 비밀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다. 말 그대로 절정을 포착한 것 같다. 사진을 통해서 살아있는 느낌을 넘어, 묘한 울림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 도록 '百濟', 백제 문화를 경험하다

한길사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었다. 그렇게 포착된 시선들을 어떻게 가둘 것인가. 모아둘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백제 유물들의 아름다움과 견주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책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길사는 몇몇 전문 업체들과 제휴를 하게 된다. 디자인 전문그룹인 (주)인터그램과 인쇄출판전문업체인 중앙문화인쇄가 바로 그곳이었다. 이들은 책의 기획, 제작, 출판, 인쇄까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은 충실한 동료였다.

(주)인터그램은 책의 제작 초기부터 서로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진집을 만들기 위해 해외의 유명 도록과 사진집들을 수집하여 벤치마킹한 것은 물론이고, 사진



촬영 전에 디자인팀과 서로 상의하여 사진의 구도와 배경, 크기, 배치 등에 대해 미리 논의를 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준초이 사진작가는 사전조사에만 4개월, 유물을 촬영하는 데만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고, (주)인터그램은 최고의 제작부 인원 4명을 동원해 1년 동안 거의 매일 야근을 해가면서 디자인, 수정작업을 반복했다. 한길사는 이렇게 제작된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인쇄기법과 인쇄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사진의 생생한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해상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CTP 인쇄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필름 소부 방식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에서 바로 데이터를 입력해 인쇄판을 만들기 때문에 고급 인쇄에 적합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여러 곳의 추천을 받아 인쇄 테스트를 거친 결과 CTP방식의 인쇄가 가능하면서 바니시 코팅 기계를 보유한 곳인 중앙문화인쇄와 협력하게 되었다. 중앙문화인쇄는 첨단 하이텔베르크 인쇄기를 보유하고, 숙련된 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인쇄품질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해 주었다.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든든한 조력자 중에 하나였다.



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했다.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롭게 시도된 CTP 방식은 나름대로 고품질 인쇄에 적합해 인쇄품질에 만족도를 더했다. 필름 출력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망점의 유실이 없었고, 같은 농도로 일관되게 출력되기 때문에 테스트페이지가 나오고, 색을 보정하면서 비교적 손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밖에 판형이 달라서, 케이스의 제작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도록 '百濟'는 바인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케이스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됐다. 천연소재 나무로 제작해보기도 하고, 옷칠과 비슷한 질감의 카슈칠을 한 칠기 케이스를 샘플로 제작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케이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큰 비용이 들었고, 자칫 케이스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내용물이 돋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런 고민들 속에서 중량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종이로 속케이스를 만들기로 하고, 케이스에는 유명 서예가 박원규 선생의 서체를 유광택 박으로 새겨 넣었다. 제작에 참여한 한길사 관계자는 "케이스가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볼품없어도 안 되어 그 접점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힘든 과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농밀한 시간과 노력이 만들어낸 것이어서, 도록 '百濟'는 그 어떤 책보다 아름답다. 백제 유물의 아름다움을 한껏 담고 있으면서, 국내 인쇄출판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김정삼 기자 sang@print.or.kr

### 국내 최대의 450×580mm 판형

모든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450×580mm의 판형에서 오는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정해진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수차례 인쇄기를 해체해 설정을 바꿔야했고, 그에 따라 사진의 생생한 질감과 광